

2023년 제6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 ◆ 일시 : 2023. 12. 8.(금) 14:00 ~ 16:02
- ◆ 장소 : 문화본부 5층 회의실
- ◆ 참석자 (12명)
 - 위원장 : ○○○
 - 위 원 : ○○○, ○○○, ○○○, ○○○, ○○○, ○○○, ○○○,
○○○, ○○○, ○○○, ○○○
 - 배석자 : ○○○ 과장, ○○○ 팀장, ○○○ 주무관
- ◆ 심의안건 (총 29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 1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5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5건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5건
 - 2023년 제1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 2건
 -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조치 결과 보고 : 1건

(개회)

○ ○○○ 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제6차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29건의 심사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번 안건입니다. <소미타참서> 관련한 내용을 서초구에 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심사

<소미타참서>

(사업관계자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세요? 2023년 시지정문화재 보수·보존처리계획서 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문화재 현황, 현재까지 진행한 보존처리 전 조사 내용과 추후 보존처리 계획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명은 2023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고 해당 심의유물은 소미타참서입니다. 해당 유물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성사이며 사업내용은 상태조사, 과학적 조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보존처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작업의 진행 상황은 9월 21일 유물 반출 이후에 기초조사와 지질분석을 제외한 과학적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물명은 <소미타참서>이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2018년 10월 18일에 지정되었으며 전적류입니다. 조선 1579년에 간행되었으며 33.5cm×21.8cm로 내지 73장입니다.

간략하게 문화재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미타참서>는 아미타불에 대한 불교의식집이며 임진왜란 이전 16세기 후반 전라도 나주 쌍계사에서 판각한 목판본입니다. 권차의 구분 없이 1책으로 한글음이 병기되어 있어 16세기 한글 음운 표기 등 국어사 연구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특징으로서는 사주단변의 형태와 반엽을 기준으로 행자수 10행 17자 그리고 권말의 간기면에 간행 시기와 판각의 기록이 있어서 명확한 간행 경위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보존처리 전 조사 내용을 형태적 조사와 손상 양상, 과학적 조사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태적 특징으로서는 5침으로 장정한 선장본의 형태이며 장정끈이 일부 결실되거나 끊긴 형태가 존재하고 앞뒤의 각 면지가 표지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상세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33.5cm×21.8cm이며 오침은 상하 각 3cm에 중간 간격은 6.5cm~7.5cm로 측정되었습니다. 높이는 원 유물이 2cm인데 이후 손상상태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단 모서리 부분에 보수지가 대부분 부착되어 있어서 이 보수지 때문에 높이 차이가

약 0.5c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보수지까지 측정을 하면 2.5cm 정도로 높이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께 측정입니다. 앞표지는 우선 대부분 결실이 되었기 때문에 면지와 배접지만 두께를 측정하여서 앞표지가 뒤표지보다 상대적으로 얇게 측정이 되었고 원 유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뒤표지에서는 0.87m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내지에서는 평균 0.11mm로 측정이 되었는데 보수지는 0.23mm, 0.25mm로 보수지만 측정하였을 때 기본 내지보다 두 배 정도 두께가 차이가 났습니다. 발끈, 발촉 같은 경우에는 발끈은 최소 서구 부분 0.8, 최대 2.0. 서배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간격이 넓어짐을 확인하였으며 발촉은 평균 16~17축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보존처리 전에 일단 얼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색도 값에서 보수지로 인한 얼룩 손상 정도를 수치화해서 L 값이 가장 낮았고 a, b 값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존처리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서책의 보존처리 과정이고요. 보존처리 중점 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의견서에서 내용이 착간되지 않도록 하고 결손부를 보강한 배접지의 제거 여부 그리고 내지 얼룩부, 표지 보존처리, 낙장된 내지 모두 기술자문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먹·섬유의 안정화 과정에서 해당 유물은 목판본이지만 일부 먹으로 쓴 필사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묶은 아교수를 이용해서 안정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섬유의 들뜬 부분에 대해서는 소맥 전분풀과 보조지를 이용해서 재안착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보존처리 자문의견에서 언급해 주셨던 내지 순서 표기에 대해서는 불교의식집 유물의 특성상 다양한 의례 내용이 착간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의견을 주셔서 해체 시 순서를 기입한 한지 조각과 저농도의 소맥전분풀을 이용해서 내지 배면에 부착하여 내용이 뒤바뀌지 않도록 유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유물은 변색과 얼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얼룩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얼룩의 범위가 좁으면 면봉을 이용해서 국부적으로 제거를 진행하겠지만 대부분 얼룩의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질이 상태에 따라서 지질이 약하면 미세분사 스프레이를 통해서 처리하는 분무법과 지질의 섬유도가 강하면 미온의 증류수를 흘려보내는 유수법의 방법으로 유물의 지질 상태에 맞춰서 습식클리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처리 전에 번짐도 테스트를 통해서 화면의 먹·안료의 안정화라든가 이런 번짐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러한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수지 제거입니다. 하단부 마모 손상이라든가 이전 수리의 보수지가 부착되어 이것은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보수지로 인해서 얼룩이 지고 두께가 변형되는 손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지 제거 여부는 추후 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제거를 하게 된다면 습을 가해 보수지의 접착된 점도를 저하시킨 후에 안정적으로 분리하고 분리한 보수지는 기록 후에 별도 보관할 예정입니다.

내지 결손 및 찢김 부분에 대해서 판심이 마모되고 연속적인 충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유사한 메움지를 선정하여서 보색 처리하고 한지 섬유를 살려서 부착하여 메움지 단차를 최소화 할 예정이며 부착 시에 소맥 전분풀의 농도를 조절하여 접착제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심 보강한지는 얇고 질긴 한지를 사용하여서 유물의 두께 변형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낙장 내지가 p24~p25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낙장 내지의 위치 표시 처리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내지 크기의 간지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위치 표시용 간지를 삽입하는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낙장의 위치 표시에 대해서는 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표지의 일반적인 보존처리 방법으로서 장정 해체 및 표지 분리 시 원 유물의 상태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구배접지 제거 후에 지질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부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앞표지에서는 대부분 결실이 되어서 면지가 드러날 정도로 배접지가 남아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뒤표지를 참고하여서 유사하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보존처리를 진행할 장소입니다. 보존처리를 진행할 장소의 전경이고요. 건식클리닝을 위한 집진시설 그리고 습식클리닝을 진행할 건조장 그리고 표지 메움이라든가 전반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LED 라이트 테이블, 그리고 기타 보존처리 도구를 구비한 시설에서 보존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인원입니다. 5인 체제로 다수의 서화 문화재 보존처리의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서 보다 안정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고요. ○○○ 위원님이 자문을 나가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 ○○○ 위원

저 책은 워낙 손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저기 자문 의견에도 썼지만 착간이 일어날 수가 있고 보다 보니까 중간에 낙장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술 자문을 통해서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 위원

보수지 종류는 뭘로 보였어요?

○ 사업관계자

보수지 종류는 두 가지로 보였는데요. 하나는 일반 배접지로 보였고, 하나는 염색이 안 된 글씨가 쓰여 있는 배접지이고 하나는 약간 염색이 된 보수지로 그 부분이 변색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위원

글씨가 쓰여 있는 것도 있었어요?

○ 사업관계자

거의 목서가 있었습니다. 배접지를 재활용한 것 같았습니다.

○ ○○○ 위원

그럼 나중에 제거할 때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차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고, 계획서대로만 잘 하시면 처리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그럼 추가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 과장

그럼 <소미타참서>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안 가결로 정리하고 다음 건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오늘 ○○○ 위원님께서 조금 일찍 나가셔야
해서 세 건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번, 15번이
고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1번입니다. ○○○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
을 해 주시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묘각사 아미타삼존불감>

○ ○○○ 위원

3건인데 각각 다른 흥미로운 불화들이 이번에 접수가 되어서요.
먼저 보실 것이 묘각사 아미타삼존불감입니다. 자료를 보신 것처럼 현재
남아 있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불감인데 안에 불화를 봉안한 것입니
다. 아마 조각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불감을 열면 불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불화를 보신 경우는 현재 조사된 게 다섯 점 정도밖
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양쪽에 신장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장상 두 구가 있고 중앙에 아미타삼존이 있는
형태입니다. 먼저 나무로 감을 만든 다음에 비단을 한 겹 깔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암적색에 가까운 비단으로 해서 여기에 선묘 중심으로
그림을 그린 일종의 황선묘불화에 속하는 예입니다. 사실 선묘불화라고
하면 조금 이따가 1560년 작품에서 보시겠지만 조선시대 전반기에 굉장
히 유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18~19세기가 되면서 다시 이러
게 자료를 아끼기도 하고 간단하게 그리는 용도로 이러한 선묘불화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묘불화는 19세기에 가면 확산이 되는 경향
을 보여주는데요. 이 불화는 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양식으로 보건대 아
마 19세기 불감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보시면 이게 많이 혈어 있거든
요. 그런데 혈게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비단을 붙인 다음에 가장자리에는
다시 또 띠를 둘렀는데 그 띠가 약간 벗겨지면서 이렇게 훼손이 된 것 같
은 느낌이 들고 다른 불감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중앙에 낙영

비슷한 게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불화는 복장공을 달거나 아니면 띠를 그림으로 표시하는데 여기에서는 중앙에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형태를 보면 불화에 다는 복장공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아래에 대개 3개 정도 술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떨어진 상태라서 약간 지저분한 느낌은 들지만 이것을 하나의 예배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복장공까지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중앙에는 아미타불 그리고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위에서 내려오는 시방불을 그렸고요. 좌우에 신장상이 두 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왕상을 그리는 금강역사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금강역사 스타일은 아니고 위태천과 같은 일종의 가람신이죠. 수호신인 그러한 신장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에 보이는 이러한 뾰족하게 표현된 양식은 다시 19세기 때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특히 이렇게 얼굴이 작으면서 몸이 길어지는 형식들은 대개 1870~1880년대가 되면 불균형한 구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묘 중심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양식으로 본다면 아마 19세기 중·후반 경이라고 추정되는 데요.

그다음을 잠깐 보시면 이게 구성입니다. 양쪽으로 달게 되어 있는데 뒤에 사진도 실려 있지만 국립중앙박물관 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소장 본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8세기로 추정되는 감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19세기로 보이는데 이렇게 중앙에 있는 장식이 아주 정교한데 이번에 올라온 묘각사 아미타삼존불감은 굉장히 간략하게 결쇠 고리만 있는 이러한 생략화 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것들은 거의 아미타불감불화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지정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에 전에 보셨던 묘각사 본은 시기도 조금 늦고 약간 떨어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희소성이라는 점에서 그때 조사를 했던 위원 분들이 일단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 ○○○ 위원장

한 건당 질의하고 넘어갈까요?

○ ○○○ 과장

한 번에 다 말씀을 하신 뒤에 하시죠.

□ <수월관음도>

○ ○○○ 위원

그림 시지정문화재로 올라온 두 건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를 하겠습니까.

이 그림은 사진을 한 번 보시면 설명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아마 이런 것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수월관음도라고 해서 올라온 건데요. 저희가 그때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가로 2m 이상 되는 건데 비단에 그리고 뒤에 종이로 배접을 하고 가장자리는 마치 찢겨져 나간 것 같은 형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이는 그림의 형식이나 채색을 본다면 근래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딱 봐도 아시겠지만 도상도 하나도 맞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위에 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기에 보면 고려 때 위무대왕, 태조 왕건의 아버지잖아요. 그때 그분이 만들어서 영산회상탱을 영산전에 봉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려 초기라고 하면 영산전이라는 전각도 없고 영산회상탱이라는 얘기도 안 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화성영산회상단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봉안했다는 내용이고 송주비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선시대 이후에 가서 나오는 것이고 특히 금어, 금어는 18세기를 넘어가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더욱더 이상한 게 여기 하운 응상이 나오는데요. 하운 응상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화승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만든 분은 고려 분이고 뒤에 나오는 화기는 완전히 조선시대, 19세기 이후의 화기를 조합해서 만든 거고 그림은 20세기쯤 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현재 유형문화재로 올라온 건입니다.

○ ○○○ 위원장

예.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앞의 건도 잠깐 얘기를 해 주시면.

- ○○○ 위원장
앞의 묘각사 본은 소장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위원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스승에게 물려받았다고만 나옵니다. 그렇게만 하
셨더라고요.
- ○○○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에 있는 주머니라든지 아니면, 파란 선
이 실제로는 종이인가요, 아니면 비단인가요?
- ○○○ 위원
파란 부분도 비단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의 복장공도 비단입니다.
- ○○○ 위원
그럼 파란 것 뒤에 배접이 되어 있나요? 선 두른 것에.
- ○○○ 위원
아니요, 선은 아래에 비단을 하나 깔고 그 위에 비단을 올린 다음에 그림
을 그렸고요. 그 가장자리를 그냥 붙인 것입니다.
- ○○○ 위원
그럴 때 그 가장자리의 비단이,
- ○○○ 위원
배접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직접 붙인 형태입니다.
- ○○○ 위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네요.
- ○○○ 위원
사진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

실 그 위에 복장공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안 보이는데 그림, 그리고 상자의 형태는 비교적 잘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 위원

사진으로만 봤을 때 상자는 지정되면 바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다 할 수는 없고 조사할 때 상태조사까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 과장

예.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태에 대한 얘기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상태가 혹시 안 좋아도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로 지정한 이후에 1~2년의 팀이 있더라도 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상태에 따라서도 가치가 다르겠지만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보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지정한 다음에 하는 것에 동의해요. 왜냐면 가끔 보면 비지정 상태에서 이상하게 해놔서 지정할 때 그 부분이 왜곡되고 훼손돼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한 이후에 전문가가 가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 ○○○ 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예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리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수리를 하지 않아야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리하는 것은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철저히 한다고 해도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놓고 여기에 뭔가 처리를 하고 나면 원래 것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기술적인 것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먼지털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혹시라도 하게 되면 복제를 하거나 이럴 때는 관촬겠지만 처리를 하게 되면 공예기술적인 것은 거의 다 21세기의 기술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상태가 아주 좋고 내 용도 좋아서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 ○○○ 위원

바깥에 불감 부분에 장식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재질이 확인되는지 모르 겠네요.

○ ○○○ 위원장

어떤 금속인지?

○ ○○○ 위원

금속인가요? 여기 문고리 부분은 다른 것을 보면 황동 계열인 것 같기는 한데요. 다른 부분의 경첩 장식으로 판으로 이렇게 한 사례는 가구에서 거의 없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원형된 것을 접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 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뒤에 중앙박물관이나 개인소장의 장식들하고의 정교한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이 떨어진 다고 할까요?

○ ○○○ 위원

시대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 ○○○ 위원장

시대가 조금 뒤입니다.

○ ○○○ 위원

재질을 밀로 썼는지, 쇠를 썼는지 황동이나 이런 것을 썼는지 확인이 되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황동 느낌 이 있어요. 저것은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부분은 그런 감이 없어서 그 부 분이 확인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쪽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 아래 부분에 ‘낙영’이라고 얘기를 하

셨는데 국장 때 사용하는 상여에도 달리고 일반 민간에서 사용하는 상여에도 저게 달리는데 낙영은 위쪽에 그물처럼 해서 장식을 다는 부분을 낙영이라고 하고 저 부분은 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깃발이라고 해서 상여가 움직일 때 흔들리면서 깃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 ○○○ 위원

족자 같은 경우에 그림이나 불화 할 때는 낙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불화에서 양쪽에 이렇게 달 때는 보통 복장공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냥 그 명칭을 쓰기는 했는데요.

○ ○○○ 위원

국조오례의 대여라든가 이런 데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그쪽에서는 주로 그렇게 쓰는 명칭이어서, 모양도 똑같습니다.

○ ○○○ 위원

저는 ○○○ 선생님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게 현재 국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의례적이고 불교적이기 때문에 낙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 ○○○ 위원

예.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 ○○○ 위원

아까 ○○○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때 ○○○ 선생님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황동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철장식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과학적 조사를 함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 ○○○ 위원

그게 지정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조사하는 데 사실 하루도 안 걸리거든요.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이 성분만 조사하는 것을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보존처리 하면 그것은 당연히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지정을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 위원

수리할 때 하는 걸로. 그래서 지정을 먼저 하고 현재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은 황동도 있고 무쇠도 있고 지금 섞여 있는데 그 부분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와 있어도 지정하는 데에는 하등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나중에 보존처리 할 때로 미루는 게 낫지 않나.

○ ○○○ 위원장

예. 일단 지정을 하고 나중에 보존처리를 할 때 그 부분도 하는 것으로.

○ ○○○ 주무관

조사보고서에 삼존도불감으로 명칭을 건의해 주셨는데 그것을 결정해주시시오.

○ ○○○ 위원

네. 원래 올라올 때는 묘각사 아미타삼존불감이라고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圖’자를 넣어서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 ○○○ 과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가결하고 명칭에 대해서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 그리고 재질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존처리 들어왔을 때 더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수월관음도는 부결에 동의하셔서 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 82페이지입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영산회도>

○ ○○○ 위원

좋은 유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물은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은 덧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새롭게 염색을 해서 덧붙였고 원래 그림은 이만큼입니다. 그림은 이것보다 조금 큰 형태인데요. 아마 미술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딱 보시는 순간 왕실발원 조선 중기 불화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선묘불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선묘불화는 조선 전반기에 왕실에서 굉장히 많이 그렸던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조선 전반기에는 금으로 그리고 후반기에는 황선이나 백선으로 그렸는데 아무래도 금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었고 왕실에서 주로 발원용으로 많이 했고 화기에는 이런 것을 순금화 또는 금선묘 불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화는 중앙에 부처님을 보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요. 그리고 보살을 비롯해서 제자 그다음에 신장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산회상도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본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육계가 뽕족하게 올라가서 눈갈사탕 같이 위에 정상 계주가 올라가는 형식이라든가 얼굴이 약간 넓적하면서 가늘게 이목구비가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다음에 옷을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굉장히 건장한 신체 표현, 약간 허리가 길게 나오는 신체나 이러한 특징은 16세기 중반기 불화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문양들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도 고려 불화와는 다르게 조선 전반기에 많이 나타나는 동심원문이라든가 나선국화문, 나선당초문 이런 문양들이 여기에 많이 시문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요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화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화기를 보시면 왕실 불화는 대개, 물론 이것은 전부 금으로 그렸습시다만 일반적으로 채색을 쓰는 경우에도 반드시 금으로 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으로 화기가 적혀 있는데 거기 번역본은 다 나갔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연대가 1560년

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원한 인물이 성렬인명대왕대비전하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처음에 왕비였다가 그다음에 왕대비가 되고 대왕대비가 되고 성렬과 인명이라는 존호를 받아서 1540여 년 이후에는 다 이러한 명칭으로 불화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주상전하, 아들 명종이 굉장히 허약했기 때문에 명종의 건강을 기원하고 명종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금방 돌아가셨잖아요. 순회세자라고 13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 후로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왕실의 후사를 잇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화 봉안을 하게 되는데 이 불화에 화기를 쓰는 이러한 형식, 아래 금발이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소위 문정왕후 발원 불화의 형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기들은 대개 보우대사가 글을 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보우대사가 글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는 여기에 보신 것처럼 불화의 명칭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순금영산회도일탱.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탱화'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만 해도 탱이라는 것은 한 점, 두 점이라는 단위를 나타내다가 나중에 귀찮으니까 영산회탱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시에 탱이라고 하는 글자의 용례, 이런 것도 알려주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선시대 전반기, 15세기에는 벽화가 일부 남아 있고요. 탱화는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560년인데 현재 남아 있는 탱화로서는 가장 연대가 오래되고 문정왕후가 발원했던 불화 가운데에서도 다른 그림보다 빠르면 1년, 4~5년 이른 연대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는 지금 이러한 류의 그림은 이미 조선 전기 불화는 거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식으로나 발원자, 조성 연대, 시대성 이런 것으로 본다면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 ○○○ 위원

심의해서 국가로 올리는 거죠?

○ ○○○ 위원

예. 명칭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영산회도가 어떤가. 아니면 나중에 혹시 모르겠지만 순금영산회도라든가, 영산회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 ○○○ 위원

그냥 영산회도로 해서 국가로 올리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 과장

영산회도 건은 이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입니다. ○○○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

○ ○○○ 위원

지금 발표해드릴 것은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로 명명했고요. 원래 올라왔던 명칭은 ‘분청박지 모란문 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명칭을 보완한 이유는 발표 마지막 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은 높이가 27.9cm로 약 28cm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청사기 선각박지 항아리들은 40cm~50c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이 유물은 28cm 정도이고요. 일단 그래서 크기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문양도 보시면 실제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광주 충효동, 전라도 고창 이런 지역에서 15세기 3/4분기 정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도 굉장히 선명하고 보조 문양과의 배치 자체가 딱 떨어지는 스타일이어서요. 그런데 이 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크기도 차이가 있어서 조금 별격이라서 남아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적고 문양 자체도 여기에 보면 모란이 있고 약간 사람이 손 뻗은 것처럼 하나의 화면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보조 문양은 실제로 전라도나 충청도권에서 만들어지는 이 분청사기 발 외면의 안쪽에 인화 상감이라는 것들 위에 백토로 완전히 걷어내지 않은, 그 다음에 약간 명문이 들어있는, 그래서 지금은 1460년대, 1470년대로 파악

할 수 있는 그릇들과 딱 매칭이 되는 보조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후의 연구대상 등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일부 그리고 여기에 약간 박지면 위에 수리는 아니고요. 구연부는 일부 수리지만 이 위의 부분은 굽는 과정에 다른 잡물이 붙었던 것들 떼어내는 과정에서의 수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보면 실제로 지정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현장에서는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편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그릇들, 실제로 전체를 박지러한 그릇들과 선각이 같이 들어간 것들은 그 전에는 조화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조화는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깎아서 꽃을 만듭니다. ‘造’자와 ‘花’자인데 그 조화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는 요새 도자사 내에서 자꾸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백토로 분장한 상태에서 백토 분장면만 음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음각이 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넓게 깎아 박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각박지 합해서 음각이라서요. 그래서 유물 명칭은 기존에 조화니 박지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선각박지가 낫지 않을까 해서 제시를 했고요. 실제로 기법 상에서 상감인화 단계를 넘어가면 보통은 그 전에는 선각이 나오고 박지라고 인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20년 상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발굴조사들을 살펴보니 그렇게 아니고 일단 전체 분장을 한 다음에 박지 기법과 일부 선각이 같이 나왔다가 나중에 박지는 사라지고 선각 위주로 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사에 있어, 특히 15세기 후반에 외면에 나오는 분장이나 이런 장식 기법도 조금 더 세밀하게 편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을 해서 지정이 가하지 않을까 라고 위원회에 상신하게 되었습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 기존에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박지문 분청사기의 경우에 선각박지를 안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처음 이렇게 쓰는 것 아닌가요?

○ ○○○ 위원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분청사 자체가 지정된 게 많이 없어서요. 그때 그게 조화로 되어 있었던 건지 선각박지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 위원장

국가지정의 명칭은 어떤가요?

○ ○○○ 위원

국가지정은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음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화도 있습니다.

○ ○○○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분청사기 중에 이렇게 보통 덕흥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명문이 있는 것 말고 이렇게 명문 없이 양식적으로만 지정된 게 몇 개가 있나요? 왜냐면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 위원장

현재 지정된 것은 국보 말고는 보물,

○ ○○○ 위원

몇 가지 지정된 것들은 문양이 정말 파격적이거나 아니면 철화 같이 추가적으로 문양이 있어서 특정 지역을 아주 명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 위원

예. 그런 경우는 지정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나 해서요.

○ ○○○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몇 번 논의는 해봤는데요. 어쨌든 독창성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예술성이나 희소성, 차후 연구 가치 등을 종합했을 때 지정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위원회에 상신했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사자 의견에 따라서 하시죠.

(“예.”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조사자 의견에 따라 가결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경성부대관이요.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대경성부대관>

○ ○○○ 위원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중간에 잘라서 붙여서 조작을 해놓은 지도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크게 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대경성부대관’이라는 제목이 붙은 지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로 길이가 다른 것보다 다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밑의 범례와 위의 지도 부분 사이를 잘라서 다른 것으로 붙인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면 확실하게 그 잘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 보면 붙인 표시가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李鐫公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종이를 갖다 붙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있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외형상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조작성이 강해서 불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 과장

그러면 이것은 부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7페이지 조문명 초상이고 이것은 ○○○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조문명 초상>

○ ○○○ 위원

이것은 현재 왼쪽 사진처럼 족자로 되어 있고요. 초상화이고요. 초상화는

저희가 항상 문제를 삼는 게 '누구 초상화이나'라는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해야 하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누구의 초상화라고 쓰여 있더라도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상은 저 족자 테두리죠. 오른쪽 테두리 바깥쪽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는데 거기에 조문명 초상화라고 쓰여 있는데 저 글씨는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 글씨를 쓴 위치도 사실은 조금 낮선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인물을 똑같이 그린 초상화가 하나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화여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얼굴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문명 초상화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은 분무공신 초상화입니다. 분무공신은 우리나라 마지막 공신으로 양무공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분명하고 다른 동반 유물이 있어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게 되면 이번에 검토 대상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초상을 옛날에 전통적으로 소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하고는 달리요. 족자는 큰데 얼굴 비례가 작다고 하면 소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얼굴이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깥 테두리에도 조문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언제 쓰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신뢰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림 화면 안쪽 위에 시가 적혀 있는데 저게 바로 자제시입니다. 조문명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거예요. 학암 산인이 자제를 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봤을 때 조문명의 초상화이고 조문명이 직접 자기 초상화에 시를 적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족자 상태는 상당히 좋고 원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라든지 금구 이런 게 그대로 다 달려 있는 상태이고요. 족자 보관 상자는 최근에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을 진군이 그렸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진군은 이때 이것을 추적해보면 해당 논문도 있었는데 진재해라는 화가이고요. 진재해는 그 당시에 어진을 비롯해서 국수라고 불리면서 초상화를 가장 잘 그렸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현재 진재해 작품으로 남아 있는 초상화, 다른 일반 그림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필법으로 봤을 때는 진재해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초상화가 조문명의 초상화이고 진재해가 그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세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기 지정된 분무공신상과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무공신상은 우리가 흔히 공신상이라고 해서 뒤에 배경이 없이 거의 등신대로 근엄한 모습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제례 등에 봉안이 되는 일종의 의례적인 초상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검토대상 초상화는 굉장히 특이한 게 뒤에 산수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물 자체가 근엄한 자세가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고 옷차림도 학창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사실적이예요. 그래서 이런 초상화가 사실 중국에서는 행락도라고 해서 자주 그려지는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제의적인 초상화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초상화는 아주 드뭅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극히 희소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공신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공적이예요. 국가에서 시작해서 내려준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이 조문명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해서 거의 같은 해에 이런 사적인 초상화를 그린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화사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작품입니다. 물론 예술성도 뛰어나고 보관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조문명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무공신이고요. 영조와 사돈지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의정까지 올라갔던 인물이고 그래서 피사 인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린 화가도 중요해서 이 작품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조사자들은 판단했고요. 제작 연대도 공신상과 같이 1728년으로 비정할 수 있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올라올 때는 ‘조문명 초상’이라고 올라왔는데 통상 이런 경우는 초상화를 지정할 때 화가를 알 수 있으면 화가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자면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요. 최근 연구에서는 ‘학암 무송상’이다. 학암이 이 사람의 호이고 무송이라는 게 소나무를 쓰다듬는다고 해서 도연명 고사와 관련이 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목은 어떤 예술작품으로 붙일 수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건조하더라도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질문 있으세요?

○ ○○○ 위원

혹시 지금 쓰고 있는 건을 자세히 보셨는지요. 이 그림에서는 잘 안 보여서요. 색깔도 그렇고.

○ ○○○ 위원

저 가운데 무늬가 있고요. 동파관하고 조금 비슷한데, 동파관은 무늬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보고서를 쓴 것에는 운건이라고 했습니다. 28쪽 보고서에 있는데 운건이라고 했습니다. 저 지팡이도 보면 점이 찍혀 있는 대나무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했고 신발도 디테일이 살아 있고요.

○ ○○○ 위원

저게 사방관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무늬가 좀 있어서요.

○ ○○○ 위원

사방관은 아니에요.

○ ○○○ 위원

예. 사방관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유소라든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매듭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시대 것이 확실하거든요. 어보라든지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처럼 안쪽에 금이 들어가 있고 봉을 집어넣어서 방망이술로 만든 것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과장

그러면 명칭을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으로 해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1페이지 만력을유 사마방목 건이고 이 건은 ○○○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력을유 사마방목(1585)>

○ ○○○ 위원

먼저 34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책 서명의 위쪽 사진 오른쪽에 보면 국가 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기술규칙이 있고 한국목록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를 것 같으면 서명은 권수제 면에 있는 풀 서명을 그대로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을유년 간지, 이렇게 해서 ‘만력을유 사마방목’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이렇게 검토 대상의 제목을 만력을유 사마방목으로 했습니다. 미리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력을유 사마방목은 선조 18년에 성균관과 장악원에서 사마시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생원시와 진사시 급제자들의 명단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금속활자인 제주갑인자로 만든 방목입니다. 1434년에 초주갑인자가 만들어졌고 1580년에 제주갑인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갑인자를 경진자라고 합니다마는, 그 경진자로 편찬한 방목입니다. 생원진사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마시가 있고 사마시를 통과하면 성균관에서 학습을 통해서 공부한 다음에 대과에 도전해서 문·무과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면 문무과 방목이 나오겠죠. 사마시라고 하며 보통은 사마방목이라고 한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출제자이자 채점관, 곧 시관의 이름이 기록된 은문, 생원시의 합격자 이름이 기록된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명단이 기록된 진사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은문은 시험 장소에 따라 일소와 이소로 나뉘어 있는데 일소는 성균관 시관 의정부 좌참찬 이산해를 비롯해서 여섯 명의 관직과 이름이 그리고 이소인 장악원의 시관은 의정부 우참찬 안자유를 비롯해서 여섯 명의 관직과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85년에 사마시를 치르고 간행한 동일본은 현재 신청 대상 본 외에 필사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같은 내용으로 있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한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은 제주갑인자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희귀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조사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 ○○○ 위원

○○○ 위원님과 같이 조사를 했는데 자료 자체가 이 시기에 나온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필사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위원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 34쪽 아래를 보면 수리된 것처럼 위아래가 보이거든요.

○ ○○○ 위원

조금 많이 손을 타서 보푸라기도 생기고 사람의 손의 인유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묻어 있는 상태로 훼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문자나 글자가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과장

그럼 가결로 정리하겠습니다. 연도는 빼고 만력을유 사마방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 <만력기축 종계증광 사마방목(1589)>

○ ○○○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8쪽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萬曆十七年己丑三月十七日’ 이렇게 연도가 표기됩니다. 그래서 종계증광 사마방목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력하고 간지 기축 뽑고 종계증광 사마방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마방목은 1589년에 편찬되었는데 선조 22년이 되겠습니다. 한성부와 장악원에서 조선 건국 이후 이성계의 가계에 대한 중국 명나라 측의 오류를 바로잡은 이른바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관한 문제가 1588년에 이르러서 월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듬해인 1589년에 사마시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생원시, 진사시 급제자들의 명단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마찬가지로 금속활자인 재주갑인자 경진자로 편찬한 방목입니다. 그래서 생원시는 장원을 한 유학 황근중을 비롯해서 1등 다섯 명, 2등 홍경신 등 25명, 3등 이호의 등 70명, 총 100

명의 생원합격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응시 당시의 직역, 이름, 자, 생년, 본관, 거주지, 아버지의 품계 직책 및 성명, 부모의 생존 여부, 형제의 이름 등이 차례대로 실려 있습니다. 진사시에도 장원 이성길을 비롯한 1등 5인, 2등은 김봉명 등 25인, 3등은 박돈 등 70명의 진사시 합격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한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은 1589년에 종계변무 처리를 기념하여 사마시를 치르고 경진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으로서 매우 희귀한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전부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은 유일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시 조사했던 조사자들도 충분히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자나 이런 것은 다 똑같고요. 같은 방식인데 유일하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유일본인 것은 알겠는데 보통 인쇄본을 몇 개쯤 인쇄하나요?

○ ○○○ 위원

여기 찍혀 있는 사람들 숫자대로 다 간행합니다. 하나씩은 다 주니까요. 그게 최소한일 겁니다.

○ ○○○ 위원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내려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동기들끼리 돈을 모

아서 따로 또 찍기도 합니다. 그것은 목판본으로 또 찍어냅니다.

○ ○○○ 위원

그렇죠. 이런 활자본은 그렇게 많이 찍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다시 목판본으로 자기들끼리 돈을 각출해서 다시 찍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자본은 많지 않을 겁니다.

○ ○○○ 위원

표지에 보면 위의 두 자는 뭘지 모르겠는데 사마방목이라고 되어 있고 일이라고 표지에 쓰인 것 같은데요. 그 표지의 글씨는 나중에 쓴 건가요 아니면 이 책을 만들 때 쓴 건지.

○ ○○○ 위원

이 책을 만들 때 썼을 겁니다.

○ ○○○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쪽에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더라도 바깥에 표지가 저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도 표시를 어딘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위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사마방목하고 밑에 일자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 느낌도 들고 해서요.

○ ○○○ 위원

보통 표지를 보면 책 제목을 국가 정부에서 써주지 않습니다. 형태만 갖춘다든가 아니면 내용만 주는 경우가 있고 제책, 장책을 개인들이 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소장하려고 하는 책들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을 쓰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원 표지에 글씨를 묵서하지는 않습니다. 글자도 예술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필가한테 받아서 그것을 제첩이라고 합니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붙여놓은 것이 오래되면 떨어지거나 도망가서 나중에 누군가 혹은 소장인이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 ○○○ 위원

제침 표시가 약간 보이네요. 위에 붙였던 곳이 때가 덜 탔잖아요.

○ ○○○ 위원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그렇습니다.

○ ○○○ 위원

제목은 동의하는데 한자 부분에 국가도 그렇고 한자는 원래 띄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력기축 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한글 띄우듯이 하는 것이라서요. 한글은 띄어서 쓰더라도 한자는 다 붙였으면 좋겠어서요. 이것도 그렇고 앞에 있는 사마방목도 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안에 있는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 ○○○ 위원장

그런데 그게 붙이면 요즘 사람들한테는 어렵지 않을까요? 띄어야 할 것 같은데요.

○ ○○○ 위원

아까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도 ‘진재해’ 띄우고 ‘필’ 띄우고 이렇게 해요.

○ ○○○ 위원

법률용어도 제목을 다 띄어 쓰거든요. 법률용어는 무조건 붙여 썼는데 10년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법률용어를 다 띄어 쓰고 있거든요.

○ ○○○ 위원장

원래는 그게 맞는데 임지를 못하니까요.

○ ○○○ 과장

지금 문화재청은 띄어놨습니다.

○ ○○○ 위원

특히 이 자료는 문서 원본 자료 명칭이 아니고 우리가 축약하면서 다시 명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 ○○○ 위원

안쪽에 있는 명칭이 붙어 있어서요. 안쪽에 다 붙어 있거든요.

○ ○○○ 위원장

우리도 띄우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시죠.

○ ○○○ 과장

예. 그러면 가결로 하고 용어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황여일 가장 사초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여일 가장 사초>

○ ○○○ 위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해월 황여일입니다. 아마 최근에 집이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월헌 고택이라고 해서 지정됐는데 그 집에 황여일이 작성한 예문관 관원으로서 춘추관 기사관 겸임을 했는데 이때 현장에서 작성한 기록입니다. 1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1587년부터 1589년 사이에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1587년 12월 26일부터 1589년 8월 16일 사이에 춘추관 기사관 겸직을 맡았습니다. 이때 작성한 것이고 제목을 가장 사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앞에 제목이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연도만 ‘戊子正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황여일 가장 사초라고 표현했습니다.

40페이지 표의 내용이 전체 12책의 규격과 작성 시기이고요. 이것이 12월 26일자 날짜에 있는 선조실록 기사와 대조를 해보면 이게 축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사초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역사박물관에 지정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다들 판단을 했습니다.

○ ○○○ 위원장

질문 없으신가요?

○ ○○○ 위원

가장 사초가 맞기는 한데 명칭을 굳이 가장 사초라고 특징을 해야 하는지. 왜냐면 정태제 사초 같은 게 이미 알려져 있고 그것도 아마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텐데 그냥 정태제 사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 ○○○ 위원장

그럼 이것도 황여일 사초라고 하는 게 옳다는 말씀인가요?

○ ○○○ 위원

예. 그러니까 설명으로 들어가면 가장 사초가 맞지만 굳이 명칭을 특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 ○○○ 위원장

그 집안에서 갖고 있는 사초니까 황여일 사초라는 거죠.

○ ○○○ 위원

예. 정태제 사초, 권예 사초 이런 것은 그냥 사람 이름에 사초라고 하거든요.

○ ○○○ 위원장

어떠세요? 의견들을 주시죠.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 ○○○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주세요. 정태제 사초.

○ ○○○ 위원

여기는 일괄 지정이 되었군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논문에서 다 정태제 사초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초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 ○○○ 위원장

우리도 황여일 사초라고 명명을 할까요?

○ ○○○ 위원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빼면서 한글에 맞춰서 띄어쓰기는 조금 바꿔주세요.

○ ○○○ 위원장

가장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는 빼고, 조사자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 ○○○ 위원

그게 맞겠습니다.

○ ○○○ 과장

그러면 이 건은 명칭을 황여일 사초로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선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문선>

○ ○○○ 위원

문선은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에서 과거시험이랄까 문예 창작 또는 외교문서 작성 그리고 국가의 전례 문장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문헌으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의 필독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래 없어서는 안 될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문선은 조선 세종과 성종 시기에 금속활자인 경자자(1420년 주조)로 인출된 바 있으며 선조 이후 목활자인 훈련도감자로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세종과 성종대에 인출된 판본은 매우 희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상도 관찰사로 있었던 강흔이 1509년 간행한 목판본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문화재로 신청한 대상은 경상도 관찰사가 간행한 판본 중 일부인 권8, 권11~17, 권25~27, 권29이 빠진 잔본 총 18권, 완질은 아니고 15책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책은 광산김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안파 종가의 후조당 소장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각 책마다 후조당이라고 묵서되어 있으며 장서인이 '先相公家藏書'라고 되어 있고 '男富儀謹追記'이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후조당은 김부필의 호이고 안동에 종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1509년 경상도 관찰사 강흔이 간행한 것과 같은 판본으로 비록 결본이나 이 판본은 매우 희귀하고 시기적으로도 오래되었음을 감안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가하다고 올렸습니다.

○ ○○○ 위원장

질문이나 의견 주시죠.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견 다수)

○ ○○○ 과장

이것은 가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8페이지 위정공간록이고 이것도 ○○○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위정공간록>

○ ○○○ 위원

위정공간록은 중국 당나라 무주 때 재상이며 장서가인 왕침이 편찬한 문헌으로 당시 문신인 위징이 당나라 태종에게 올린 간주와 문대를 모아 왕침이 5권2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위정공간록은 1507년 조대유가 간행한 목판본을 저본으로 해서 1542년에 동할자인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책입니다. 표지의 문양은 연당초문이며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주갑인자본 위정공간록은 5권2책의 완질본으로 비록 2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완질본으로는 매우 희귀한 판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사적 측면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지 뒷면 면지에는 내사기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嘉靖二十一年

(1542)四月日 內賜承政院右副承旨金緣魏鄭公諫錄一件 命除謝恩 左承旨臣洪手泐' 이런 식의 내사기가 있어서 상당히 이것만 하더라도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서문면 상단에서는 '宣賜之記'라고 내사인까지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인과 하단에는 '先相公家藏書'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부필의 소장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정공간록은 완질본이고 또한 전래된 집안 문중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또 내사본이고 내사기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자료이다. 그래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관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모든 조사자들이 동의했습니다.

○ ○○○ 위원장

질문 있으신가요?

○ ○○○ 위원

참고로 아까 문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소장처에서 처음에는 국가지정으로 신청을 했다가 너무나 그때 심사를 하면서 '아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락을 시켰는데 아까워서 다시 서울시 유형으로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 위원

궁금해서 여쭙보는데 제목은 왜 이렇게 붙였나요?

○ ○○○ 위원

위정공, 위징이거든요. 위징이 간한 것을 모아서 했다. 그래서 위정공간록입니다.

○ ○○○ 위원장

위정공의 간록인 거죠.

○ ○○○ 위원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이것은 위정공간록으로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 ○○○ 위원
네.

○ ○○○ 과장
그럼 이것도 위정공간록으로 가결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완영일록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완영일록>

○ ○○○ 위원
완영일록은 서명응의 손자쥬.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 시절에 쓴 일기인데요.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양반들의 생활일기하고는 다르고 이 사람이 관찰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의 관직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그냥 쓴 것은 아니고 완영이 완주 감영이거든요. 감영에서 주고받은 공문서들을 그냥 쪽 옮겨 적어놓은 형식의 일기입니다. 공문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전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일기로 같은 사람이 수원 유수 재임 시절에 쓴 <화영일록>이 경기도박물관에 번역본이 있고 경상도에 가면 아직도 유명하고 사료로도 많이 활용되는 <영영일기>라고 했는데요. 형식이 이 세 개가 유사한데 완영일록을 제외한 것들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완영일록밖에 없고 지금 8책짜리 자료인데 8책 결락 없이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보존 상태는 19세기 자료라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는 다 양호한데 마지막 책이 새로 장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표지가 다 날아간 것은 아니고 저 안쪽에 원래 표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위에 그냥 덧붙여 있는 것인데 표지 일부분이 잘려 나가서 저렇게 새로 입혀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상태도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책이나 5책, 6책 이런 게 다 표지 안쪽으로 배접이 되어 있는데 주로 3책, 5책은 배접된 문서도 확인이 돼요. 공문서의 하나인데 첩정이라는 문서로

확인이 되고 6책은 조세 수취 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땅의 등급을 확인해서 조세를 매기는 짓기로 보이는데, 그런 자료로 같은 공적 일기니까 공문서로 배접된 것도 특이하고 원본이 배접지까지 잘 남아 있어서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조사하신 선생님들 의견이 일치해서 이것도 지정하는 데 무리는 없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 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그럼 이것도 가결로 처리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태교신기 관련해서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태교신기>

○ ○○○ 위원

예.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에 소장이 되어 있어서 신청한 자료입니다. 태교신기는 태교에 관하여 저자가 경험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산부였던 사주당 이씨가 태아를 교육하는 태교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저술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당 이씨는 1739년에 태어나서 1821년(순조 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교에 관하여 한문으로 1800년에 저술하였고 그 아들인 유희가 1801년에 한글로 번역하고 발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821년에는 신작이 서문을 붙이고 1930년에는 현손인 근영이 쓴 발문이 또 붙어 있습니다. 또한 1936년에 정인보의 음의서략이 각자의 필체로,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정인보 선생님이 쓰신 것이 볼펜으로 기록을 해 놨던 것이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확실한 전래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원본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태교신기는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조선 순조 때 사주당 이씨

가 1800년 쓴 한문 언본에 아들 유희가 언해한 필사본 원본으로서 조선 후기 여성 학자의 실학적 저술로서 그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쓴 한문 원문을 아들인 유희가 1년 뒤인 1801년에 언해하였고, 신작과 유근영, 정인보 등 당대 저명한 학자들이 친필로 쓴 서문과 발문이 남아 있어 자료의 전래 과정 역시 분명하여 자료적 가치 매우 높다고 해서 당시 조사자들 전원 이 자료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보존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 위원장

질문 있으신가요?

○ ○○○ 위원

사주당 이씨 태교신기는 워낙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서울대, 연세대 등의 박물관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고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찾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 위원장

소장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지정이 되어 있나요?

○ ○○○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100%는 장담하기 힘든데 친필 책이 아닌가.

○ ○○○ 위원

역주, 번역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 ○○○ 위원장

그런데 초본이면 지정 가치가 있는 거죠.

○ ○○○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추가조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이에요.

○ ○○○ 위원

필체가 좀 다르고 하기 때문이에요.

○ ○○○ 위원장

○○○님이 같이 전수조사하셨잖아요. 초본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 ○○○ 위원

네. 자료 자체는 많이 알려져 있고 하지만. 예.

○ ○○○ 위원

초본은 확실하거든요. 그 집안 대대로 이어진 것이고 정인보 선생님이 썼기 때문에.

○ ○○○ 위원장

태교에 관한 책이니까 많이 퍼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초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니까요. 이게 초본 가능성이 크면 지정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 ○○○ 위원

그런데 ○○○님 말씀처럼 비교해서 더 확정을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세 분 선생님들이 동의를 했지만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왕 지정할 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것을 한 번은,

○ ○○○ 위원

나머지 자료는 저는 다 전사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들은 다 베낀 것으로.

○ ○○○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다 석인본입니다. 1936년에 석인한 겁니다.

○ ○○○ 위원

석인본 한 번 확인을 해보죠.

○ ○○○ 과장

그러면 우선 확인하고 초본이 확실하다고 하면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시죠.

(정회)

(속개)

○ ○○○ 과장

그러면 다음 건 진행하겠습니다. 61페이지 백자 제기 건이고 ○○○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백자 제기>

○ ○○○ 위원

지금 보고해드릴 사항은 백자 제기로 들어온 건입니다. 그런데 제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18세기 이후에 고족 접시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요. 그다음에 소장이 자체는 형태가 특이하다는 게 지정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름이 넓다 보니까 살짝 주저앉아서 눈에는 생경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크다는 것 외에는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이런 고족 접시들이 주로 만들어지는 18~19세기에는 내저에 원각이 없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이 유물은 내저에 원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접지면에 보통은 1752년 이후에는 관요가 분원리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제작되는 양상들을 보면 각굽이 있는 것들에는 주로 고운 모래가 부착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이 개체는 모래가 굵은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굵이랑 외저면이 만나는 곳에 하나의 단이 지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의도한 단 같지는 않고 실제로 보통 이런 것들을 굵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통굽을 만든 다음에 외면을 깎아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깎아내는 과정에서 칼날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관요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강원도 양구나 이런 식으로 1883년 관요가 민영화된 다음에 주로 백자나 청화백자를 만드는 곳에서는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내면에 청화로 ‘祭’, ‘壽’, ‘福’ 이런 것들도 없었고요. 별도로 단순히 크고 내저 윗각이 있다는 특징 이외에는 이런 것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는 적지 않겠는가 하고 현장에서 파악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그러면 부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백자 팔각 제기입니다.

□ <백자 팔각 제기>

○ ○○○ 위원

형식적으로는 제기인데요. 아마 모사기로 썼던 그릇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각으로 되어 있고요. 구연부 테두리가 색깔이 변색된 것은 실제로 다른 흔적은 아니고 표면이 많이 마멸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사기를 계속 쓰는 과정에 그게 마멸된 것 같고요.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넘어간 이견희 컬렉션이나 기존에 다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모사기들 같은 경우 각굽에 풍혈 장식이 있다거나 백색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 건은 비슷한 종류의 그릇들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용됐다는 거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정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부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백자 철채 약연>

○ ○○○ 위원

세 번째는 백자 철채 약연인데요. 약연이 도자기로 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특히 ‘碾’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뭔가 분쇄를 하거나 착즙을 하는 데 쓰는 것이라서 특히 금속보다는 도자 계통이나 칠기 계통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자재 약연은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개체는 외면이 산화철로 전체가 발라져 있어서 그 정도가 비슷한 것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것도 별다른 차이점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여기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아래쪽에 보면 뭔가 이물질 같은 게 직선으로 짝차 있는 게 있었는데요. 아마 나무나 다른 결구부에 끼워서 쓰고 이것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제작 흔적이 전체가 시유를 하고 이 아래 동그랗게 모래를 받쳐서 구웠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방 가마에서 간혹 확인할 수 있는 양상이라서요. 이것 역시도 해당하는 개체를 특정 전각이나 특정한 곳에서 썼다는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참고로 관요에서 만들어지는 1505년에 해당하는 명문이 나온 경기도 광주시 도마리라는 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리에서 나오는 약연들을 보면 양질과 조질이 다 나오는데 의외로 개체가 많지 않습니다만 조선시대 관요에서 몇 가지 확인되는 개체들을 보면 대부분 안까지 다 시유를 해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가루보다는 착즙용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번에 조사한 개체는 안쪽에는 유약을 다 걷어냈습니다. 유약을 걷어낸 차이지 굳이 이런 것들이 특징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서요. 다만 몇 개 명칭에 있어서 차후에 생각을 해볼 점은 보통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약연’이라고 올라옵니다마는, 여러 문헌이나 민속자료들을 보면 연과 연차 보통은 연알이라고도 부르는데 약연과 연차 정도로 차후에는 명칭을 정리해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것만 현장에서 회의를 통해서 도출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 개체 역시 별도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

한 가치는 없지 않겠느냐는 현장 의견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예. 부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사전심의 하는 내용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금동보살입상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것은 ○○○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금동보살입상>

○ ○○○ 위원장

불상이 이번에 두 점이 올라왔는데 두 구가 다 불가이고요. 이게 첫 번째 인데요. 불가 사유가 91쪽 밑의 조사 결과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상은 잘 만들었어요. 열심히 잘 만든 상인데 문제는 진위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보셔서 아주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상이 머리 위에 디테일이 없는데 머리 위의 보살상은 보개라고 하잖아요. 상투인데 이 위의 처리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조사자들이 다 느낀 것은 대좌와 몸체가 같은 시기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참고 자료에 보면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상이 국보인데요. 이 상이 모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상을 카피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좌를 붙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뒤에 이 상을 보시면 뒷면의 주조 구멍도 아주 이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동불은,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부식이 되는 정도가 인위적인 부식인 경우에는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지정이 불가하다고 의논을 해서 조사자 모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부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백자대호 관련해서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백자대호>

○ ○○○ 위원

요새 한참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 지정문화재도 그렇고 달항아리 관련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기는 한데요. 일단 사이즈를 언급해 드리면 높이가 47cm입니다. 구경은 23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굽지름이 25.5cm로 26cm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17세 말에서 18세기까지 제작되었던 백자 원형 대호의 조형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위아래가 도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굽의 지름이 훨씬 좁아야 하는데 이 개체는 굽지름이 굉장히 크고요. 달항아리라고 불리는 항아리들이 밑이 두껍고 무겁습니다만, 이 개체는 들기 힘들 정도로 무게가 어마어마하고 기존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달항아리라고 구분하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해당하는 그릇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일단 굽 자체도 단면이 거의 사각형을 이룰 정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동체를 접합한 접동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맞는데 물론 이 외면에서도 티가 납니다만 이 안쪽은 큰 단이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은 현재 고고학적이든 남아있는 것들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보통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보시는 형태인데요. 이것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생경합니다. 보통 보면 경상도 권이나 진주나 이런 쪽에서 거의 20세기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만 그것과도 큰 차이가 있어서요. 이것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예. 부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금동약사여래입상입니다. ○○○께서 말씀해 주

시겠습니까.

□ <금동약사여래입상>

○ ○○○ 위원장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보살상도, 지금 말씀하신 도자기도 굉장히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과하게 무거웠어요. 그것도 전부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했구요. 지금 이 상의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보면 일단 뒷면이 너무 분명한 상인데요. 머리 뒤에 있는 주조 구멍이 아주 일부러 뚫은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이고요. 이 사진을 확대해보시면 이 상이야말로 아까보다 더 심하게 인위적인 부식 상태가 너무 보이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대퇴부에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아시아의 호탄 라왁 사원지에서 처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병령사에도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감산사에도 나타나는데 사실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디서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명하게 열심히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했습니다.

○ ○○○ 과장

알겠습니다. 부결로 정리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범망경 관련된 내용이고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범망경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보살계본>

○ ○○○ 위원

예.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잘 아시다시피 범망경이라고 대승 불교에서 계율서로 많이 이야기하는 자료이고요. 보살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율 십중금계, 가벼운 것 48가지, 48경계. 이런 것을 따로 설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간 것도 이중에 하권만 뽑아서 보살계본 이렇게 따로 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부터 시작해서 쪽 간행이 되고 조선 후기에는 더 많이 간행되고 엄청나게 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순서로 본다면 현재 남아 있는 것 중에서는 시기적

으로 세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고려 본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대장경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두 건이 있는데 하나가 장서각에 있는 책하고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장서각 본보다 훨씬 좋고 특이한 것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구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아주 괜찮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서문이 있고 서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갈 때 보시면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어 보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이 부분 말고 연결해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절첩이었습니다. 첩장이었다가 이것을 선장으로 만들면서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보다 앞선 시기가 1306년에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있는 철산 소경 발문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사실은 이 자료의 원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는 딱 맞아떨어집니다. 고려 말에 번각한 것이 거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장

이 자료가 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나요?

○ ○○○ 위원

이 자료는 알려져 있습니다.

○ ○○○ 위원장

연구도 되고 그랬습니까?

○ ○○○ 위원

연구가 상세하게는 되어 있지는 않는데 장서각 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미 얘기는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연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사실 앞서 나온 것, 이것도 철산 소경 발문이 있는데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보면 안향의 서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 ○○○ 위원

이게 구결도 있고 해서 한글박물관에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 ○○○ 위원장

한글박물관에서 구입한 거죠.

○ ○○○ 위원

예.

○ ○○○ 위원

그런데 상태가 좋아서 국가 문화재가 될 만할 것 같아요. 상태가 상당히 좋네요.

○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지정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 과장

그럼 가결로 처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등록문화재 관련한 사전 심의 건입니다. 108페이지 IOC 가입 승인서이고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IOC 가입 승인서>

○ ○○○ 위원

사진을 보시면 가로로 세 군데 접힌 자국이 있고 세로로 접힌 자국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도 접힌 자국이 있고요. 뒷면에는 접힌 자국이 중앙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앞 페이지 까만색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인화를 할 때 반전인화를 했던 것을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그것을 다시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반 접어서 갖고 있었던 것이고 IOC 가입

입 승인서라고 했는데 ‘가입 축하한다. 앞으로 돈 잘 내라.’는 내용의 편지글입니다. 이게 여러 번 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예.”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부결로 처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제1회 전국스포오츠소년대회 관련 유물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제1회 전국스포오츠소년대회 관련 유물>

○ ○○○ 위원

이것 역시도 제1회 전국스포오츠소년대회 개최 계획인데,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개최 계획 자체가 공식 문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연구할 때의 사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정하기는 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 배지는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스포오츠소년대회라는 책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입장상 1위 대통령배라는 부분도 보면 용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침대를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원형 훼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곤란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과장

그러면 부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우승배입니다.

□ <전국체육대회 우승배>

○ ○○○ 위원

이것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환배, 이것을 받아서 우승 하면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됐고 중간 중간에 원형 보존이라고 할까요. 모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갖다 붙인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정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예. 이것도 부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입니다.

□ <전국체육대회 성화봉>

○ ○○○ 위원

이것도 신청 대상 밑에 대접을 저렇게 놓은 것 같은 모양인데요. 그 뒷면의 사진에 보시면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위의 모양은 이런데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모양이 전혀 달라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그럼 이것도 부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종두 기계입니다. 이것도 ○○○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종두 기계>

○ ○○○ 위원

사진을 보시면 종두 기계라고 해서 유리판 위에 종두균을 옆에 있는 침에 묻혀서 접종을 하는 형태인데요. 첫 번째는 상자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들이 상자를 보면 딱 맞게,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다 쏟아집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꽤 지났다면 바깥쪽 모서리, 그다음에 장식 부분이랄까 이런 것들이 초기 종두 기계가 있을 때 사용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나중의 것이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 ○○○ 과장

이것도 부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소위원회 했던 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2023년 제1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 <송석원시사야연도·송석원시회도>

○ ○○○ 위원

지난번 회의에서 우선 첫 번째 안건인 송석원시사야연도와 송석원시회도가 두 개 별건으로 올라온 것을 조사해서 하나로 지정을 한다고 되었고요. 그런데 지정 명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더 받아보자고 해서요. 외부위원 두 분을 선정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정 명칭은 그때 보고서에 제시했던 안이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였는데 외부위원 중에 한 분은 이 안에 찬성을 해 주셨고 다른 한 분은 그때 논의가 됐던 것 중에 옥계 청유첩,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이 원래 소속이 되어 있었던 첩의 명칭을 넣어주는 게 맞겠다고 해서 어쨌든 역시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저희가 다 종합했을 때 그래도 현재로서 가장 합당하

고 다수 의견이 나오는 것은 원래 원안인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대도 조사보고서에는 1791년 경이라고 해서 1791년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1792년 초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경이라고 했는데 역시 외부위원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한 분은 1791년 경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 또 한 분은 이게 1791년으로 특정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역시 이것도 다수 의견은 1791년 경으로 해서 소위에서도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제주십이경도>

그다음에 또 한 건이 제주십이경도였는데요. 이 경우도 조사보고서에서는 그 전에 제주십경도라는 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면은 열두 장면이지만 열 장면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위원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위원한테 의견을 구했는데 이것도 역시 의견이 같았습니다. 한 분은 제주십이경도, 또 한 분은 탐라십이경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라를 선호했던 분은 과거의 명칭이 탐라십경도라는 명칭이 문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이상한 해결방식이지만 ‘제주’라는 것에 의견이 모이고 ‘십이경’이라는 데 의견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원래 조사보고서와는 달리 ‘제주십이경도’라고 하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 그 보고서를 이번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 ○○○ 위원

소위원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다수)

○ ○○○ 과장

그러면 소위원회 결과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석불입상의 내용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조치 결과 보고

□ <석불입상>

○ ○○○ 위원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태풍으로 큰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쓰러진 건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죠. 머리 부분을 쳤는데 살짝 쳐서 저게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게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그 밑의 사진을 보시면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옛날에 보수할 때 박아놨던 철심 때문에. 저게 없었으면 떨어져서 박살이 났을 텐데 저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그래서 과정 중에 임시적으로 긴급보수를 하기 전에 보완을 했다가 긴급처리를 했습니다. 처리 방법은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옛날 철심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녹이 슬지 않은 철심을 티타늄 봉으로 박아서 붙였는데, 저것은 제가 가서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잘 처리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 전에는 저기가 수목이 우거져서 굉장히 습했거든요. 그래서 돌의 풍화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가지치기를 해서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게 해서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 ○○○ 위원

추가로 더 손상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 ○○○ 위원

예. 그나마 살짝 넘어져서요. 단을 왜 저렇게 높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높게 해서 아마 떨어졌으면 박살이 났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 ○○○ 과장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안건은 다 마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6차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